

님은 쇠약증이 악화되어 얻은 큰 병을 털고 일어났지만, 나이 때문에 더는 치료가 어려웠네. 그분은 프랑스로 다시 오라고 조카를 불러들였지. 아니면, 혹 건강 때문에 그렇게 긴 여행을 하기 어렵다면, 비르지니를 프랑스로 보내라고 분부했네. 비르지니가 훌륭한 교육을 받고, 궁정에서 자리를 하나 얻게끔, 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게끔 일을 도모해놓겠노라 했어. 그녀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면, 그에 따른 보상으로 후의를 베풀겠다고 말했네.

이 편지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낭독되자마자,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악을 감추지 못했어. 도맹그와 마리는 울기 시작했지. 폴은 놀라서 땀도 흘리지 않고,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낼 것만 같았네. 비르지니는 어머니에게 시신을 붙박인 채, 차마 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어.

“이제 와서 우리를 떠날 수 있겠어요?”

마르그리트가 라 투르 부인에게 말했네.

“아니에요, 나의 벗. 그렇지 않단다, 우리 아가들.”

라 투르 부인이 말을 이었어.

“나는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. 난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고, 여러분과 함께 생을 마감하길 원해요. 나는 우리의 우정 안에서 겨우 행복이란 무엇인지 알았어요.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내 오랜 슬픔이 그 원인일 거예요. 친